

민선 8기 광주·전남 미래전환 종합 청사진 제시

광주전남연구원, 27개 '시·군·자치구 발전구상' 발표 지역 특성·잠재력 분석 통해 비전·발전방향 등 공개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 8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의 미래 전환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6일 "올해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역점 기획과제인 '광주·전남 시·군·자치구 발전구상' 보고서를 16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전체 연구진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광주·전남 27개 시·군·자치구별로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비전과 기본목표, 발전방향 등 기본구상을 제시했으며,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비전으로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행복 동구 ▲글로벌 교류 중심 마이스 1번지

서구 ▲더 새롭고 더 좋아지는 생태·문화·경계도시 남구 ▲사람과 자연, 문화와 첨단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시티 북구 ▲다양성과 자치로 지속성장하는 활력도시 광산구 등을 제시했다.

또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은 동북아 해양·관광 및 글로벌 신성장거점,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 선도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천년을 미래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에너지 수도, 사람이 찾아오는 차세대 스마트·그린 플랫폼도시 등을 비전으로 제안했다.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 등은 주민이 행복한 웰니스도시, 사람이 모이는 생태교육·평생학습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치유도시, 미래가치를 구현하는 미래산업의 중심지, '쉽고 활력'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녹차수도, 첨단의료·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 등을 미래 구상으로 삼았다.

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 등은 건강과 치유의 명품고장, 스마트 에코 남도 미래 1번지,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힐링도시, 땅끝, 활기 넘치는 미래 도시, 국토 서남권의 신경제벨트(교통·물류·관광) 허브, 사람과 자연이 생동하는 생명도시 등을 비전으로 내놨다.

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은 자연·문화·기술이 함께하는 행복, 기후변화와 생태치유 거점 선도도시, 해양치유산업 메카, 정장바다수도,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군, '섬의 시대'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천사섬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보고서는 지역소멸 위기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광주전남이 처한 지역 불균형 상황 속에서 민선 8기 광주

전남 기초자치체가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아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김기근 선임연구위원이, 전남 22개 시·군은 조창완 연구본부장, 김대성·김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각각 총괄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기초자치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자치구 담당연구위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보고서는 지난 3개월간 광주·전남 4개 권역별로 시·군·자치구 기획실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 워크숍과 간담회를 토대로 그 결과를 도출했다.

광주·전남 시·군·자치구 발전구상 전문은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jeri.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00억원 규모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광주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광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원 규모 자금 대출을 보증한다.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1년 일시 상환 고정 금리 최저 3.20%, 5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최고 3.64%(평균 3.34%)가 적용된다.

대출을 바라는 창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특례보증서를 발행받아 7개 참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순환권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창업 유도 및 유망한 창업 기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등 전남도, 인권보장·증진 추진

전남도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는 2021년 5월 수립된 제2차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전남 ▲누구나 행복한 전남 ▲함께 누리는 전남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인권체계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에 걸쳐 14개 추진 방향과 51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부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 평가체계 구축 및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 지사회의 인권 친화적 인프라 구축, 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소통상생하는 인권 협력체계 구축 등 복잡·다양한 인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의회 임시회 참석한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운영·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 방문의 해' 해외홍보 본격 시동

전남도가 코로나 팬데믹(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열린 국제관광 설명회에 참가한데 이어 싱가포르와 독일에서도 마케팅을 계획하는 등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해외홍보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미국 LA에서 지난 5일과 13일 각각 열린 국제 관광 설명회에 참가해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가 주최한 '코리아 원더랜드(Korea Wonderland)' 자유여행객(FIT) 대상 관광 설명회에 비대면으로 참여해 전남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설명회는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에서 진행됐다.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자유여행객 약 200명이 참석해 관광 설명을 듣고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이뤄졌다.

이어 미국에서는 전남도 미주사무소와 협력해 여행업계 관계자 400명, 소비자 3만명이 참여한 'LA 관광 설명회(LA Travel & Adventure Show)'에 참가해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주로 소개했다.

오는 31일에는 여행안전권역 체결 국가인 싱가포르 여행사 대상 온라인 관광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전남도 유럽사무소와 협력해 독일 '케이팝 콘서트(K-Pop Flex Concert)'에 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이스포츠(e-Sports) 허브도시 조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 추진

광주시에 광주를 아시아 게임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이스포츠(e-Sports) 산업지원센터를 조성·운영한다.

이스포츠 산업 지원센터 조성·운영사업은 2020년 12월 개관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활성화하고, 광주이스포츠교육원 배출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이스포츠 산업 지원센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중 하나로,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운영을 맡는다.

시는 이스포츠 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시설 인프라 구축 및 통합체계 구축 ▲생활 밀착 이스포츠 생태환경 조성 ▲커뮤니케이션 다양화 프로그램 ▲국내 및 국제교류 추진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스포츠 체험 시설 구축과 함께 이스

포츠 훈련센터 및 클럽 등록 시스템을 갖춘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스포츠대회 등에 활용하고, 광주 소재 학교 등에 게이밍 피시(PC) 등 이스포츠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은 물론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피시(PC)방 등에서 열리는 민간 이스포츠대회 상금 지원 등을 통해 이스포츠 저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수료자

가 습득한 전문지식을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기존 게임의 이스포츠화 지원, 게임 음악 콘서트,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16일 "2020년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개관, 2021년 광주 이스포츠교육원 개관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통해 광주가 게임과 이스포츠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쓰겠다"며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을 거점으로 민간 협업과 국제교류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의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